
II

통화신용정책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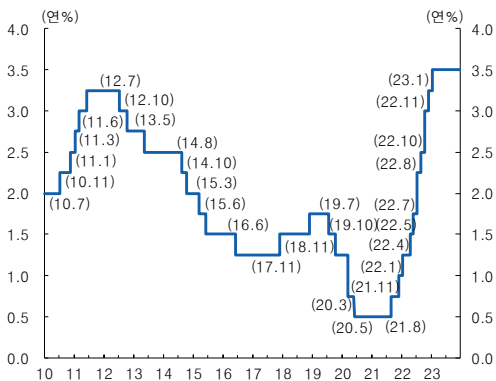
1. 기준금리	45
2. 금융중개지원대출	48
3. 여타 통화신용정책	50

1. 기준금리

연 3.50%에서 유지

한국은행은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기조를 이어 나가는 가운데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 위험,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등을 면밀히 점검하였으며, 기준금리는 연 3.50%에서 유지하였다.

그림 II-1. 한국은행 기준금리⁷⁰⁾



주: 1) () 내는 기준금리 조정 월
자료: 한국은행

이 기간 중 기준금리 결정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0월 회의에서는 미 연준의 높은 정책금리 장기화 시사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물가 및

성장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현재의 긴축 수준인 3.50%에서 유지⁷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다소 더딘 모습이지만 수출 부진 완화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도 지난 8월 전망치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물가는 에너지 및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9월 중 상승률이 3.7%로 높아졌지만, 근원인플레이션율과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모두 9월 중 3.3%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앞으로의 물가 흐름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금년 말 3%대 초반으로 낮아지고 내년에도 완만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다만 높아진 국제유가와 환율의 과급영향,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으로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 시기는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근원물가도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기초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으나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의 과급영향 지속 등으로 둔화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미 연준의 높은 정책금리 장기화 시사,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장기 국고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상당폭 상승하고 주가는 하락하는 등 금융·외환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주택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으며,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70) 총 7인의 출석위원 모두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0%)에서 유지하는 데 찬성하였다.

11월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유지(71)하였다. 이는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기초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국내경제는 수출 회복세 지속 등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성장률도 금년 1.4%에서 내년에는 2.1%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다만 국내외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와 더딘 소비회복세의 영향으로 내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2.2%)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향후 성장 경로에는 국내외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의 과급영향,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10월 중 3.8%로 높아졌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3.2%로 낮아졌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4%로 소폭 상승하였다. 앞으로 국내 물가는 수요압력 약화, 국제유가와 농산물가격 하락 영향 등으로 기초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예상보다 높아진 비용압력의 영향으로 지난 8월 전망경로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앞으로 점차 낮아져 내년 상반기 중 3% 내외를 나타내겠으며 연간으로는 금년은 3.6%, 내년은 2.6%로 전망되었다. 근원물가는 완만한 둔화 흐름을 지속하겠으며 금년 및 내년 상승률은 각각 3.5% 및

2.3%로 예상되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 가운데 미 연준의 금리인상 종료 기대가 높아지면서 국고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큰 폭 하락하였으며 주가는 상승하였다. 비은행 금융부문의 유동성 리스크는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연체를 상승은 이어졌다.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였고 주택가격 상승폭은 축소되었다.

공개시장운영을 통한 유동성 조절

한국은행은 초단기금리인 콜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통화안정증권,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통화안정계정 등의 공개시장운영 수단을 활용하여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고 있다.

2023년 3/4분기 유동성조절 필요규모⁷²⁾(평균 기준)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잔액⁷³⁾ 및 정부의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감소, 계절적 요인에 따른 화폐발행액 증가 등으로 지준공급이 축소되면서 전분기대비 감소하였다. 이에 한국은행은 RP순매각⁷⁴⁾ 및 통화안정계정 예치⁷⁵⁾ 규모를 큰 폭 축소하였다. 특히 9월에는 대규모 국고채 원리금 상환 및 공모주 청약, 장기 추석연휴 및 분기말 자금수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준공급을 위한 RP매입을 실시⁷⁶⁾하였다. 한편 통화안정증권 발행잔액의 경우 계절적 요인⁷⁷⁾에 의해 소

71) 총 7인의 출석위원 모두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0%)에서 유지하는 데 찬성하였다.

72) 유동성조절 필요규모는 은행이 중앙은행 계좌에 실제로 적립하고 있는 잔액인 지준공급과 은행이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법정 필요지준인 지준수요의 차이로 정의한다.

73) 금융중개지원대출(명잔 기준)은 3/4분기 중 전분기대비 6.9조 원 감소, 10월에는 전월대비 2.8조 원 감소하였다.

74) RP순매각(명잔 기준)은 3/4분기 중 전분기대비 11.0조 원 감소, 10월에는 전월대비 2.6조 원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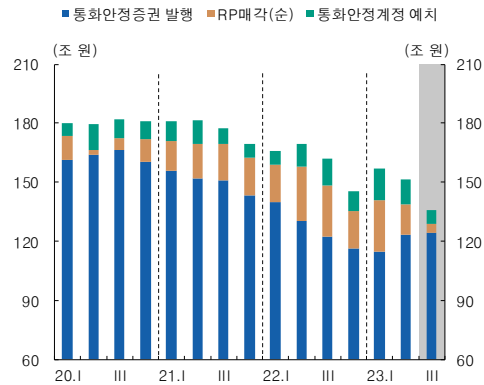
75) 통화안정계정 예치(평균 기준)는 3/4분기 중 전분기대비 5.4조 원 감소, 10월에는 전월대비 0.7조 원 감소하였다.

76) 9월 중 4차례(9월 6일 6일물 2.2조 원, 9월 8일 3일물 6.0조 원, 9월 20일 5일물 4.0조 원, 9월 26일 8일물 5.0조 원)에 걸쳐 총 17.2조 원 규모의 RP매입을 실시하였다.

77) 통화안정증권 2년물의 경우 2개월(매 짝수월) 통합발행의 영향으로 짝수월에 증권의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2/4분기 및 4/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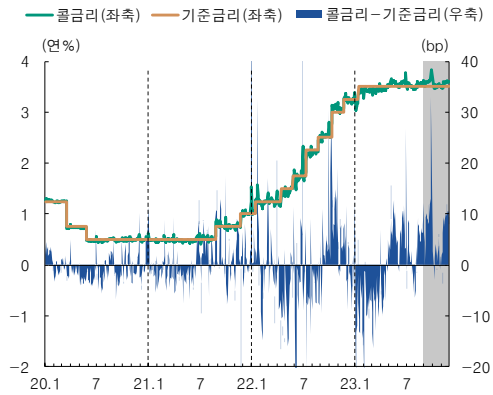
폭 증가⁷⁸⁾하였다. 10월에도 금융중개지원대출 잔액 감소 등으로 유동성조절 필요규모 축소가 지속됨에 따라 주로 통화안정증권 발행 규모 및 통화안정계정 예치 규모 축소로 대응하였다.

그림 II-2. 공개시장운영 수단별 유동성 조절규모⁰⁾



주: 1) 평잔 기준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3. 기준금리 및 콜금리



자료: 한국은행

발행 잔액이 더 적은 경향이 있다. 다만 2021년 10월 이후 통합발행 주기가 3개월(매분기 초월)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2023년 4/4분기 이후로는 분기별 잔액 변동 영향이 줄어들 전망이다.

78) 통화안정증권 발행 잔액(평잔 기준)은 3/4분기 중 전분기대비 0.9조 원 증가, 10월에는 전월대비 3.8조 원 감소하였다.

2. 금융중개지원대출

한국은행은 은행이 중소기업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와 프로그램별 한도 및 한도 유보분, 각 프로그램별 대출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경제상황 및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12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금융중개지원대출 총 한도를 30조 원으로 운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당시 한도 유보분을 통해 한시적으로 운용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13조 원) 및 소상공인 지원(6조 원) 프로그램이 종료됨에 따라 한시적 예비 한도 9조 원 및 재해복구특별지원 목적 0.3조 원⁷⁹⁾을 제외한 나머지 9.8조 원을 감액한 데 기인한다.

한시적 예비 목적으로 확보된 한도 유보분 9조 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통화긴축 기조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부정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는 부문 및 지역을 지원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도 유보분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가동 여부, 지원 결정시 지원 규모·기간·대상·방식 등에 대해서는 추후 금융·경제 상황을 보아가며 검토할 예정이다.

2023년 12월 현재 여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프

로그램별 한도는 무역금융지원 1.5조 원, 신성장·일자리지원 13조 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0.3조 원, 지방중소기업지원 5.9조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각 프로그램의 대출금리는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지원 프로그램이 모두 종료됨에 따라 2.0%로 일원화되어 적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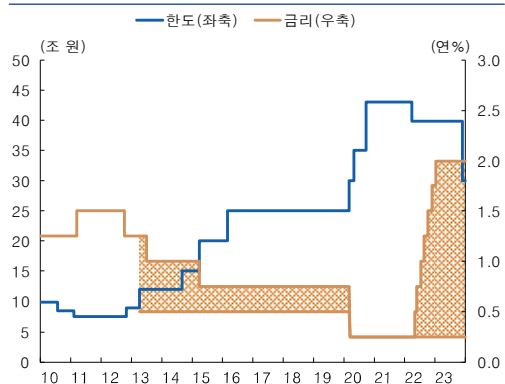
표 II-1.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프로그램별 한도 및 금리

(조 원, 연%)

변경 전 (2023년 11월 30일까지)		변경 후 (2023년 12월 1일 이후)	
프로그램	한도 금리	프로그램	한도 금리
무역금융지원	1.5 2.00	무역금융지원	1.5 2.00
신성장·일자리지원	13.0 2.00	신성장·일자리지원	13.0 2.00
중소기업대출안정화	0.3 2.00	중소기업대출안정화	0.3 2.00
지방중소기업지원	5.9 2.00	지방중소기업지원	5.9 2.00
한도 유보분	19.1 -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13.0 0.25	한도 유보분	9.3 ¹⁾ 2.00
소상공인 지원	6.0 0.25		
재해복구특별지원	0.1 2.00		
합 계	39.8 -	합 계	30.0 -

주: 1) 한시적 예비 한도 9조 원 및 재해복구특별지원 목적 0.3조 원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4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 및 금리¹⁾



주: 1) 음영은 프로그램별로 대출금리가 상이하였던 시기의 상·하한 구간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79) 태풍, 산불 등 자연재해에 따른 한국은행의 피해 지원 여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도 유보분 내 재해복구특별지원 목적의 한도를 기존 0.1조 원에서 0.3조 원으로 증액하였다.

한편 신성장·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창업 기업 및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부문의 지원대상을 개편하여 2024년 1월 대출취급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창업기업 지원 부문의 경우 기술형 창업기업에 대해 지원제외 업종을 신설하여 적용⁸⁰⁾하는 한편, 한국신용정보원의 기술신용평가사 등에 대한 기술평가 품질 심사 결과를 지원 대상 요건에 반영하기로 하였다.⁸¹⁾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부문에서는 제도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원대상 요건을 정비⁸²⁾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실적 인정비율을 하향 조정(75% → 50%)하였다.

80) 기술형 창업기업도 일반 창업기업 및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부문과 동일하게 부동산업, 병·의원 등 지원제외 업종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81) 「기술평가품질관리위원회」 심사 결과가 '미흡' 으로 판정된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및 TCB에 준하는 은행의 기술평가보증서를 기반으로 한 대출을 지원대상 대출실적에서 배제하기로 하였다. 다만, 창업기업 지원부문과 관련하여 「기술평가품질관리위원회」 심사 결과 반영은 2024년 상반기 심사 결과가 나온 날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82) 지원대상을 직전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대신 일자리 창출에 따른 공제세액이 발생한 기업으로 변경함으로써 당해연도 공제세액이 발생하였으나 결손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기업 등을 포함하는 대신, 과거에 발생한 공제세액의 이월세액공제로 지원대상이 된 기업 등을 제외시키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 공제세액이 발생한 기업을 지원대상 요건에 포함하였다.

3. 여타 통화신용정책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한국은행은 변동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전환을 통한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 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 출자⁸³⁾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 6월 중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2,300억 원을 출자하였다. 다만 금년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기존의 안심전환대출을 특례보급자리론으로 통합하여 운용하면서 출자 목적에 부합하는 대환대출 공급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금년 중 추가 출자는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금융·외환시장 상황 점검 지속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외환 시장의 움직임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변동성 확대시 비상점검체제를 가동하여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과 금융·외환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시장상황 점검회의」(10월 4일)를 통해 추석 연휴기간 중 국내외 금융·외환 시장 상황을 점검하였고, 9월 21일과 11월 2일에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와 관련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국제금융 시장 동향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였다.

금융시스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 강화

한국은행은 주요국 통화긴축 기조 지속, 국내외 부동산시장 불확실성 증대 등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대내외 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를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금융시스템 상황을 점검하였다.

9월 「금융안정회의」⁸⁴⁾에서는 금융불균형 재확대 우려를 비롯해 비은행금융기관의 신용·유동성리스크 등이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을 중점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산시장과 연계되어 가계 및 기업부채 증가가 야기할 수 있는 금융불균형이 경제성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편 가계 취약차주 및 기업 부동산 PF대출 등 취약부문 부실위험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지 평가하였다. 아울러 연령별로 차별화된 특성을 보이고 있는 가계대출 현황을 점검해 연령별 건전성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비은행금융기관 해외대체투자 현황을 업권별·투자대상별로 면밀히 살펴보고, 투자 손실규모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해외대체투자 부실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상호금융의 업권별 자금조달·운용 구조의 특성과 손실흡수능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이 밖에도 장기준속 한계기업의 재무 현황을 자산규모별·업종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취약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비롯한

83) 한국은행은 2004년 한국주택금융사 설립지원을 위해 3,100억 원, 2012년 고정금리부 가계대출 취급 활성화를 위해 1,350억 원, 2015년 제1차 안심전환대출 공급 지원을 위해 2,000억 원, 2022년 제3차 안심전환대출 공급 지원을 위해 1,200억 원, 2023년 6월 특례보급자리론 중 대환대출 지원을 위해 2,300억 원 등 총 9,950억 원을 출자하였다.

84)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보도자료 「금융안정 상황」(2023년 9월)을 참고

여러 유관기관 협의체 등을 통해 가계부채, 부동산 PF 등 국내 금융·경제 상황 관련 주요 현안과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금융기관 공동검사 등을 통한 금융현안 및 금융시스템 잠재리스크 점검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 점검, 현장정보 수집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금융현안 및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하였다.

개별은행에 대한 리스크검사를 통해 기업 및 가계대출 취급 현황, 자금조달·운용 실태, 경영상의 특기사항 및 한국은행 규정 준수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또한 금융기관 이사회 앞 검사결과 설명회를 통해 한국은행 검사업무에 대한 피드백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표 II-2 공동검사 실시 횟수

2019	2020	2021	2022	2023 ¹⁾
6	2	6	5	5

주 : 1) 2023년의 경우 1~11월 중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편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자산건전성, 수익성, 경영상의 특기사항 등 경영실태를 분석하였으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저해요인을 사전에 포착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한국은행은 ECB 주최 금융감독기관 회의에 참석하여 금융기관 관련 주요 이슈 및 리스

크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주요국 감독당국이 주최하는 감독자협의회(Supervisory College)에 참석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대형은행의 경영 상황 및 리스크 실태, 글로벌 금융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다.

글로벌 금융협력 강화

한국은행은 BIS, G20, IMF 등 주요 국제기구 및 협의체가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하였다. 세계 경제 전망, 글로벌 통화정책 긴축의 영향, 경제적·지정학적 분절화, 암호자산 규제·감독체계 강화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함으로써 글로벌 금융경제 상황과 주요국의 정책 방향 등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요인을 시의성 있게 파악하여 정책대응의 유효성을 제고하였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23년 11월 BIS 산하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Committee o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의장으로 선임되어 글로벌 금융경제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대응 방안 수립 등을 주도하는 책무를 맡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간 정책공조 등 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역내 다자간 통화스왑 협정인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9월(일본 도쿄) 및 11월(인도네시아 롬복) ASEAN+3 실무회의에 참석하여 CMIM 신속금융 프로그램 도입, 자본조달구조 개편 방안, CMIM 자금지원 금리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효율성 평가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이하 'PFMI)」⁸⁵⁾ 등 지급결제분야 국제기준이 우리나라에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등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BOK-Wire+)에 대한 평가를 2023년 11월 완료하였다. 평가 결과, 일부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2023년 6월에는 증권사(1개)에 대한 공동검사를 통해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적정성, 결제유동성 관리실태, 통화신용정책 수행 관련 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 계획 발표

한국은행은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현금 이용 감소세 지속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 관련 연구·개발을 지속해 오고 있다.

그간 모의실험 등을 통하여 기술 및 법·제도적 이슈, 과급효과 등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개발을 수행⁸⁶⁾한 데 이어, 지난 10월 4일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실제 환경에서 CBDC의 활용사례를 점검해 보는 「CBDC 활용성 테스트」 계획을 발표하였다. 금번 활용성 테스트에서는 연구범위를 범용 CBDC⁸⁷⁾에서 기관용 CBDC⁸⁸⁾로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디지털 통화가 발행·유통될 수 있는 미래 금융시장인프라 구축 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프로그래밍 기능(programmability)을 활용한 다양한 활용사례를 점검하는 가운데, 일부 활용사례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디지털통화의 효용을 체험할 수 있는 실거래 테스트도 제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⁸⁹⁾

한편, 금번 활용성 테스트 실시를 위해 정부, 국제기구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이번 테스트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실거래 테스트가 현행법 체계 내에서 충분한 이용자 보호조치 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이슈 등 관련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결

8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인프라 확충과 금융시장인프라의 운영에 관한 국제기준 정비 필요성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됨에 따라 2012년 4월 BIS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공동으로 지급결제분야의 국제기준인 PFMI를 제정·발표하였다. 이후 CPMI-IOSCO는 PFMI 준수를 위한 보충적 지침으로서 「FM 사이버복원력 지침」(2016년 6월), 「FM 손실복구 지침」(2017년 7월), 「CCP(Central Counterparty) 복원력 추가지침」(2017년 7월) 등의 국제기준을 추가 제정하였다.

86) 범용 CBDC의 기술적 연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보도자료 「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 2단계 결과 및 향후 계획」(2022년 11월) 및 「CBDC 모의시스템 금융기관 연계실험 결과」(2023년 5월)를 참고

87) 현금과 마찬가지로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에게 직접 발행되어 일상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CBDC를 의미한다.

88)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및 최종 결제 등의 용도로 금융기관 등만이 사용할 수 있는 CBDC를 의미한다.

89) CBDC 활용성 테스트 계획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보도자료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BIS와 협력하여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험 공동 추진」(2023년 10월)을 참고

제은행(BIS)은 한국은행의 CBDC 네트워크 설계 방안 등에 대해 기술자문을 제공하였으며, 향후에도 공동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한국은행은 범용 CBDC 관련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보안 및 오프라인 CBDC 등 핵심 기술 연구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